

쌓여가는 교리실력만큼 가족의 정도 훈훈

가족 친지 동료들이 모여 한바탕 축제를 펼쳤다. 불교교리와 전통문화 체험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4회 '나란다 축제'가 9월 8일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그동안 펼쳐오던 교리경시대회를 나란다축제로 명칭을 변경 일반인까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4회 '나란다 축제'

오전 11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인 대상 '범종을 울려라' 퀴즈 대회가 진행됐다. 64개팀 192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조계사, 국제선센터, 금통사, 봉은사 등 각 사찰 신도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가족, 불교대 및 직장 동료 등이 팀을 이루어 참가해 훈훈한 가족의 정 혹은 동료의 정을 보여줬다.

관 치열한 경합을 벌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 씨는 "2주 정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영광을 얻어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연 씨는 "작년에 조계사 퀴즈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어 최우수상도 괜찮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초등학생 250여 명이 참여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됐다. 초등생 4500여 명 가운데 18: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한 어린이들이 퀴즈 경연을 펼친 것.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 종회의원 대오스님, 동원 이사장 심산스님 등이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딸과 함께 참가한 배문경 씨(국제선센터)는 "세번째 문제에서 안타깝게 떨어졌다. 하지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다음번에 더 꼼꼼히 준비해 꼭 다시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사불교대 동료들과 함께 참여한 김종대 씨는 일곱 번째 문제에서 고배의 잔을 마셨지만 표정은 밝았다. "이렇게 불교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내년엔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본 행사 시작전 몸풀기용으로 진행된 퀴즈에서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연애인 누구를 닮았을까요?"라는 질문에 장동진, 이승기, 김태희, 엽다 등 다양한 답이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무르익었다. 하지만 초반부터 참가자들이 대거 탈락하자 대경연으로 패자부활전을 치르고 다시 대회가 펼쳐졌다. 각 사찰별 열린 응원전도 눈길을 끌었다. 진관사 은석초등학교 국제선



올해 일반부 대상을 배출한 조계사불교대 응원전



초등부 대상 수상자 양윤성 어린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통문화체험마당. 진관사 어린이들의 오카리나 연주 모습.

센터 봉은사 보리수어린이회 등 각자 참가 학생들을 위한 열띤 응원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봉은사(남양주) 양윤성 ▷최우수상에는 순천 금당절 김동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구미도량 박채영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박채영 어린이는 청각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접전을 벌여 감동을 주었다. 어머니 이은미 씨는 "기쁨을 듣지 못해 화면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잘

일반인 대회 확대 등 1만명 참가 초등부 18:1 뚫고 본선 진출

해 주어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만해광장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전통문화체험마당은 청소년들의 체험마당 및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됐다. 동대부고 천수바라춤, 진관사 오카리나 연주, 회룡사 합창, 동대부고 및 조계사 댄스, 대불련 율동, 신홍사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한편, 이날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교리경시대회에 전국에서 2천 여명의 학생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속초,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 중립학교에서 교리경시대회가 진행돼 불교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열기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음날인 9일 전국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교리경시대회 역시 지난해에 비해 두 배에 해당하는 인원인 2천 여명이 응시해 청년 불자들의 열

구미 대관음사 박채영 어린이 청각장애 극복 최우수상 수상

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에 초등생 200만원, 고교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조계종총무원장상인 일반부 대상에는 3백만원이, 군장병 대상에는 50만원이 주어진다.

결과는 10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교도소 교리 경시대회도 계획"

나란다 축제 위원장 성호 스님



9월 8일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나란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교리경시대회를 넘어 그 범위를 일반으로 확대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란다축제를 이끌어온 위원장 성호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사진)은 이번 대회가 흥겨운 축제였다고 말한다.

명 대중들이 참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통 불교문화 체험 마당은 학생들이 교리공부뿐만 아니라 전통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지난해 군부대로 경시대회를 확산시킨데 이어 올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가 신설되어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단순한 교리 경시대회를 넘어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죠"

"처음 시도된 행사였어요. 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라고 마련된 자리였는데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교리경시대회만 치르고 급히 가버려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능 콘테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5세기 경 세계 최대 불교대학이자 학문의 요람인 나란다 대학에서 명칭을 따온 나란다 축제. 이번 축제는 많은 이들에게 불교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대가 참여한 가족들이 있고 직장동료 불교대학 친구 등이 함께 참여하니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리공부는 물론이고 가족 참가자는 가정의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한 참가자는 우의를 돈독히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었죠"

더 나아가 나란다 축제는 내년에도 교도소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한다. 스님은 "초등학생을 위한 행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군장병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행사도 반응이 큰만큼 곧 정착화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불교를 알려나가는 것이 대회의 목적만큼 내년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경시대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도 목표로 해외 경시대회 전 불자들의 축제라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1만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격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계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